

지하철 지연, 男 난임 등 디테일 보장 설계 경쟁

보험사, 일상 리스크 빈틈 공략
올해 배타적 사용권 38건 획득

삼성화재, 지하철 지연 첫 보장
DB손보, 펫 행동교정영역 실손화
신한·한화, 환율·난임 독창 설계



첫 GPT가 생성한 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이미지.

보험사들이 올해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보장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 심의 기준(독창성·유용성·진보성)에 걸맞는 디테일 설계로 ‘생활·환리스크·의료’를 정면 돌파하고 있는 것.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보험사들이 획득한 배타적 사용권은 총 38건으로 집계됐다. 생보업계가 9건, 손보업계가 29건을 차지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보험상품에 일정 기간 부여되는 독점 판매권이다.

우선 손보에서는 ‘생활 리스크’를 정면으로 다룬 2건이 눈에 띈다.

삼성화재의 ‘수도권 지하철 지연보험’은 지하철이 30분 이상 지연될 때 택시·버스 등 대체교통비를 월 1회, 최대 3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료 1400원으로 1년 보장을 제공한다. 업계 최초 콘셉트로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얻었다. 해당 상품의 핵심은 ‘원스톱 자동보상’이다. 승차차 기록과 지연 정보, 대체교통 영수증을 데이터로 연결해 청구를 자동 처리하는 구조를 구현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20년 특허도 확보했다. 수도권에서 ‘30분 이상 지연 경험자 연 26만명’에 달한다는 배경 통계는 생활밀착형 보상 니즈를 설명한다. 티머니와의 제휴로 앱 내 간편 가입까지 가능하다.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 지하철지연시 대체교통수단의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했다”며 “사회적 편의 증진과 보험 산업 성장을 동시에 이끄는 혁신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DB손해보험은 펫보험 최초로 배타적 사용권 9개월을 받았다.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담보는 반려견이 개물림사고를 내 타인이 2주 이상 진단을 받고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행동교정 훈련비를 실손 보장한다. 사고당 최대 10회, 회당 15만원 한도로 훈련 유형(1대1·그룹·가정방문·위탁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해 ‘보장=치료비’라는 기존 펫보험의 틀을 재발 방지·케어로 확장했다.

해당 담보는 DB손해보험이 올 한 해

펫 영역에서 이어 온 연속 히트의 정점이기도 하다. 1월엔 보호자 입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을, 4월엔 개물림 사고 벌금 보장을 도입해 책임보장을 넓혔고, 5월 행동교정 훈련비 담보로 ‘의료비→행동 교정’까지 보장 단계를 한 칸 더 전진시켰다.

DB손해보험은 “개물림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 해결책(훈련 등)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존재하나 보장공백이 발생한다”며 “행동교정훈련 보장을 통해 이상행동 케어 영역까지 펫보험의 건강 보장 영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생보에서는 ‘환리스크’와 ‘남성 난임’이란 빈틈을 파고든 2건이 주목된다.

신한라이프의 ‘지정환율설정 연금지급특약’은 고객이 미리 정한 지정환율에 따라 지급일 환율이 기준 이상이면 원화로 연금 지급, 미만이면 달러로 거치(이자 포함)하도록 자동 전환되는 구조다. 연금지급 D-1(전날)까지 지정환율 변경이 가능해 환율 전략을 능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앱 기반으로 설정·관리하는 사용성도 강조된다. 배타적 사용권은 6개월을 부여받았다.

한화생명도 남성 특화 3종으로 보장의 균형을 크게 당겼다. 전립선암 진단·치료에 활용되는 PSMA PET 검사비, 난임 정자채취 지원, 특정 남성 난임 수술을 급여 기준으로 직접 보장하는 구성으로, 여성 중심이던 난임 보장의 공백을 메웠다.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받았고 남성 난임 보장을 의료 행위 단위로 끌어내려 실제 치료과정의 비용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한화생명은 “난임과 관련된 지원은 국가 및 민간의 ‘여성위주’ 지원으로 발 전해왔으나, 남성 난임에 대한 직접 지원은 제한적”이라며 “업계 최초 남성의 난임 보조생식술 관련 정자채취 급여의료행위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가을 이사철, 수도권 전세난 우려 확산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수도권 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세 물량은 줄고 전세가 가격은 계속 오르면서 내 집 마련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14일 부동산 데이터기업 아실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9월 30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 물건은 4만86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2304건) 대비 21.9%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만8406건에서 2만3961건으로 15.6% 줄었고, 경기도는 2만8966건에서 2만717건으로 28.5% 감소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인천도 4932건에서 3962건으로 19.7% 줄었다.

전세 물량이 줄자 전세가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29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주간 전세가는 전주 대비 0.08% 올라 33주 연속 상승했다.

/전지원 기자

한 돈에 82만원… 금값 연일 사상 최고가

美 섀다운 불안·금리 인하 기대감
‘안전자산’ 금 현물 한달새 40% ↑

계속되는 금 수요에 국내 금 가격이 한 돈에 82만원을 돌파했다. 국제 금 가격도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며 온스당 4100달러를 넘겼다. 미국 내에서 ‘섀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정지)이 장기화할 조짐이 본격화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금 가격을 끌어올렸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금 현물은 전일 증가(20만9660원)보다 10240원(4.88%) 오른 그래프(g)당 21만9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 돈(3.75g)에 해당하는 가격은 약 82만5000원이다. 국내 금 가격은 전일에도 4.9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초로 20만원을 넘겼는데, 하루만에 21만원을 재돌파한 모습이다. 지난달부터 국내 금 현물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달 초와 비교한 가격 상승률은 40.1%에 달한다.

국제 금 가격의 상승세도 매섭다. 뉴욕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거래에서 12월 인도물 국제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4133.0달러에 장을 마쳤다. 전일보다 132.60달러(3.31%) 급등한 수준으로, 국제 금 가격은 지난 7일 사상 최초로 온스당 4000달러를 넘긴 지 6일 만에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 금 가격은 이달 들어만 사상 최고가를 6번 경신했고, 지난해 말 가격인 2641달러와 비교한 가격 상승률도 56.49%에 육박한다.



서울 종로구 골드팡 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금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금 가격이 급등한 것은 미 연방정부의 섀다운이 장기화하면서 ‘안전자산’인 금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1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2026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이어지면서다. 예산 집행이 중단되면서 국가 안보, 치안 등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기능을 제외한 연방 정부 소속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돌입했다.

당초 미국 내에서는 섀다운이 2주 내에 종료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했지만, 공화당 소속 하원 의장이 14일(현지시간) 타협 가능성에 선을 긋는 등 교착 상황이 계속되면서 섀다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장은 “민주당이 건강보험 요구를 철회하고 정부를 재개하기 전까지는 협상하지 않겠다”면서 “(이번 섀다운이)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섀다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지속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금값 상승을 지지

하고 있다. 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금 가격은 통상 금리 하락기에 상승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 금리 선물시장은 미 연준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개최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98.34%로 사실상 확신하고 있다. 금리 인하 수준에 대해서는 25bp(1bp=0.01%p)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연일 지속된 만큼, 금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구간에 돌입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폴 시아나 시장분석가는 “역사적으로 금 가격은 라운드 넘버(다수의 0으로 딱 떨어지는 숫자)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고, 금 가격은 2024년 들어만 약 20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면서 “금 가격은 거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4분기에는 보험세가 이어지거나 가격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직접 공급’ 현실성 논란… 2029년 부채 300조 우려

2025 국토위 LH 국정감사

사의 표명한 이한준 LH 사장 출석
공공택지 매각 중단에 수익원 붕괴
정부 재정지원 없인 추진 ‘역부족’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 직접 시행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실행을 위한 제정과 인력 등 구체적인 방안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매각에 따른 수익 보전 구조가 사실상 해체되면서 LH의 부채 규모가 오는 2029년이면 300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지적됐다.

이한준 LH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임대주택 급증으로 인한 LH의 부채와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택지 매각 수익 축소로 인해 교차보전 구조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공사 조직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13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중 LH가 담당하는 물량이 55만6000호(41.2%)다.

이 사장은 “이번 정부는 9·7 대책을 통한 주택 공급 방식의 대전환과 LH 사



이한준 LH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업 구조 변경을 통해 공공 주도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공택지 일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간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LH의 재정 부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미 LH의 부채는 160조원 규모로 공공기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부채비율이 222%에 달한다. 기존 사업구조로도 오는 2029년에는 260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되던 상황이다.

이 사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2029년 LH의 부채가 300조원에 달할 수도 있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민간에 매각할 토지를 LH가 직접 시행해서 늘어나는 공급량이 5만 3000호로, 착공하려면 1호당 4억원씩 총 20조원 남짓이 소요된다”며 “종합적으로 평상시 기채 발행이 15조원 규모인데 매년 1조원 남짓 기채를 추가 발행해 매년 최소 5조원 이상 증가해 5년간 총 25조원 정도 기채 발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토지 매각이 안 되니까 자체적인 수익구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LH개혁위원회와 중장기적인 재무안정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답은 정부의 재정 투입밖에 없지만 이 역시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 사장은 “공공인 LH가 직접 시행을 하면서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목표는 달성될 수 있지만 LH 입장에서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다음달 1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안상미 기자 smahn1@